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리 합양산 재배의 적지
● 합양산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종적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국내 처음으로 백담암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생령과 형태의 팔부신중상.



◇김은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탑 동관부처. 지국천왕상의 옷주름 하나하나도 생생하게 보존처리 됐다.



◇전남 나주시 죽색마을에 있는 돌부처를 석불문화연구원 이근후박사가 조사하고 있다.

98년 빛을 본 불교문화재

정법수호 사천왕상들 우리곁에 다시 온 뜻은...

문화재는 한 시대의 삶과 정신이 응축된 역사다. 신라시대의 문화재에서는 신라인의 삶이, 조선시대의 문화재에서는 조선인의 삶이 녹아 들어 있는 것이다. 사찰 깊숙한 곳에서 고이고이 간직되어 온 문화재. 땅 속에 묻혔거나 탑 속에 모셔졌다가 가나 긴 시간을 뛰어 넘어 세상에 재발견된 문화재들은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세월을 읽기 위해 후세의 우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 과학적으로 고증하고 복원하는 등 한 시대의 증거로 남아 있는 문화재를 이 시대의 보물로 살려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우리 곁에 다시 살아숨쉬는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교량이 되고 바로 우리의 현재가 된다.

올 한해 동안 지정된 보물은 불교문화재 12건을 포함 모두 18건. 국보지정은 한점도 없었다. 따라서 국보는 그대로 3백2점, 보물은 1천2백92점으로 늘어났다.

올해 지정된 보물, 발굴 문화재, 보존처리된 문화재들 중에는 유독 사천왕과 같은 호국신장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보존처리를 마치고 선보인 김은사지 사천왕상과 지국천왕상, 새로 발굴된 백담암 팔부신중, 수정사지 인왕상 등은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교에서 악귀를 물리치고 정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 마치 요충 방어하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조계종 본류 등으로 지칠대로 지쳐있는 불심을 달래고 파시현정의 활날을 새워 사방을 타파라는 뜻처럼 느껴진다.

악귀를 깔고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인 생령과 형태의 팔부신중은 전북 남원시 실상사 백담암 삼층석탑 기단 부에서 발견됐다.

팔부신중이 한꺼번에 6점이나 출토된 것은 처음인데 머리카락, 눈, 눈썹, 입 등이 섬세하게 표현돼 있는 등 보존상태가 뛰어나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사상 연구는 물론 선조들의 뛰어난 조각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인왕상은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근육이 풍물풍물 살아있고 형태가 독특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은사지 동탑에서 발견된 사천왕상과 지국천왕상도 1천년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고 불멸 수호의 용감한 기개를 우리들에게 펼쳐내는 듯하다.

단 두 점만이 보물로 지정된 과불상은 균형미와 밝고 깔끔한 색채로 대표되는 17세기 과불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 둘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북장사 영산회괘불탱(1278호)은 존탁해진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들려주기라도 하는 듯 영산회상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덩그러니 그려져 있는 죽림사 세존괘불탱(1279호)은 현존 세존괘불탱 가운데 가장 빠른 1622년에 조성됐는데 크기와 형식이 고전적이고 작가의 이름과 세존탱이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보물로 지정된 석탑은 모두 6기, 이중에 일명 남매탑 또는 모누이탑으로 불리며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그 설화가 소개되고 있는 청량사지 오층석탑(1284호)과 칠층석탑(1285호)은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다. 스님과 처녀 그리고 호랑이의 전설이 구비구비 전해내려와 더욱 신비로운데 승속을 넘나들고 남녀를 넘나들며 수행정진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흐르러진 불교의 모습에 일침을 던진다. 한계사지 남삼층석탑(1275호)과 북삼층석탑(1276호)은 9세기 후반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우리나라 북방한계선에 가까이 세워진 것이어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삼화사 삼층석탑(1277호), 율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1283호), 오어사 동종(1280호), 수밀관음도(1286호), 지장보살삼존도(1287호),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1292호) 등이 올해 보물로 지정되었다.

올해 발굴되거나 보존처리돼 햇빛을 보게 된 문화재에는 소불상들이 주류를 이룬다. 발굴된 문화재는 경남 진주시 청곡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불상 6구, 김해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금동보살입상, 서울 우이동 법안사 뒷편 바위 틈에서 우연히 발견된 금동불상 2구 등이다. 2~3년 전에 발굴 출토되어 보존처리를 받은 뒤에 새 모습으로 돌아온 문화재는 도갑사 문수동자상, 나원리 석탑 유물인 금동소불상과 금동소탑 등이 있다. 이외에도 나주 북암리에서 나온 민(민)자 명 토기와 고당사지·선원사지·화암사지동 사지 출토 유물이 있다.

김자연 기자(jygang@buddhopia.com)



◇불법을 지키는 사천왕상. 김은사지에서 출토됐다.



◇고려시대 조성된 용암사지 삼층석탑은 백제계 양식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98년 11월 절 앞 저수지 준설공사중 우연히 발견된 토함 오어사 동종. 섬세한 문양과 장인·제작연대 등 명문이 가치를 더하고 있다. 올해 보물 1280호로 지정되었다.



◇현존 과불탱 가운데 가장 빠른 1622년에 조성된 죽림사 세존괘불탱은 독존좌불(獨坐佛) 형식으로 단아한 특징을 보여준다.



◇작년 3월 도갑사에서 출토된 문수동자상은 보존 처리되어 올해 새 모습으로 공개됐다.

‘돌부처 찾기’ 결산

고증통해 역사적 가치 부여

30여건 접수...9회 답사 고증

현대불교가 한국석불문화연구회와 '98년 연중기획으로 결산 돌부처 찾기운동은 3월부터 총 9회에 걸쳐 전국에 산재한 돌부처를 찾아내 역사성과 가치를 부여하여 복원해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돌부처 찾기운동은 본지에서 재보를 받아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이화대 교수)가 대성선장 및 답사를 하고 한국고원대 박물관장 정영호박사의 고증으로 본지에 소개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운동은 시작과 함께 13건이 재보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총 30여건이 접수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사람들은 마을주민 결승권 내용은 관리소홀로 본신의 위험이 높거나 최근 분실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스님들의 재보는 그동안 사찰 법당에 모시고 있거나 인근에서 경내로 모셔온 불상으로 정당한 고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경북 포항과 경기도 연천에서는 자연석이 그대로 부처님 형상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부처님으로 참배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재보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부처님이 자연석으로 형성됐다고 해서 도로개설로 인한 파손과 환경적으로 훼손이 무모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돌부처 찾기운동 결과 총 9기종 5기의 돌부처가 약사 여러불이었으며 3기가 석가여래불, 1기가 관세음보살상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민간에는 약사여래사상이 깊숙히 스며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불문화연구회 유영철 사무국장은 "석불찾기운동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비로 운영되는 석불회 여건상 더 많은 석불을 탐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운동이 보다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단차원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관리국 김동태(유형문화재 2과)씨는 "정부에서는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대불교신문에서 1년 동안 활기차게 펼친 돌부처 찾기 운동은 문화재를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의의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런 민간차원의 노력이 더 많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며 본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원우 기자(wkim@buddhopia.com)

“민족문화 살리는 작은 실천”

‘돌부처 찾기’ 동참 정영호·이근후 박사



“돌부처 찾기는 곧 도래할 문화의 시대를 맞아 민족문화를 살리는 시금석입니다.”

98년 본지의 돌부처 찾기운동에 동참한 정영호박사(한국고원대 박물관장)와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 이근후박사(이화대)는 “돌부처 찾기 운동을 함께 펼쳐 보람이 컸다”고 밝혔다. 정영호박사는 “돌부처 찾기운동은 문화재 보호운동과 귀결된다”며 “우리세대에 돌부처찾기운동이 안될 경우 문화재는 모두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돌부처 찾기운동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후박사는 “한해동안 전국을 누비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고하고 “한국석불문화연구회와 회의를 개정, 돌부처와 관련한 전문기 회의를 대폭 영입하여 탐방하는 모임으로 단골이 나가겠다”고 밝혔다.